

은사사용 지침

Ver. 2.1 08/29/2015

은사사용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는 이유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은사를 받고 이 은사를 바르게 사용함으로 온 교회 공동체가 “유익하게” 되어 든든하게 세워지기 위함이다. 먼저 중요한 것은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최종목표는 “예수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다.(롬 8:29) 따라서 언제나 은사보다 성품이 우선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성령의 은사보다 성령의 열매가 우선이다. 물론 이 두가지는 각자에게 양자택일의 개념이 아니고 둘다 다 필요한 것이다. 만약 성령의 열매가 많이 있어도 은사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능력있게 사역하지 못한다. 반대로 은사가 있는데 열매가 없으면 그 은사로 인하여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에 해를 줄 수 있다. 따라서 이 두가지가 균형있게 성장하도록 늘 자신을 죽이고(자아 부인),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은사의 성경적 기초

1. 모든 성령의 은사들은 성도를 세우고 교회를 유익하는데 목적이 있다.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은사들은(예언, 가르치는 은사, 섬기는 은사, 권위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병고침, 능력행함, 영분별, 방언, 방언통역, 돕는 은사, 등)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한분 성령께서 주신 것이다(고전 12:7). 이런 모든 은사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 특별히 본교회가 추구하는 “지역 사회와 열방을 향한 영혼구원/제자 삼기”에 은사 사용이 집중되어야 한다.

2. 모든 은사들 간에는 우열이 없으며 사역을 위한 것이다.

모든 은사는 한 성령이 행하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는 것이므로(고전 12:11) 은사 자체에 우열이 없다(고전 12:18). 따라서 성도들간에도 어떤 특정한 은사(예: 신유, 예언)를 받은 사람을 다른 은사를 받은 사람과 더 우월한(혹은 열등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오늘날 교회에 이런 경향은 성경에 무지한 증거이다. 우리 교회는 목장에서 참된 예배가 드러지고 목원들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는 양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많은 은사가 필요한데 특히 “돕는 은사”(고전 12:28)와 “섬기는 은사”(롬 12:7)가 많이 필요하다. 목장에서 모든 은사들은 앞에서 말한 “가서 제자삼는 사역”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3. 모든 성령의 은사들은 “사랑”에 싸여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야 한다.

아무리 큰 은사가 나타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니고 아무 유익이 없다(고전 13:1-3). 사랑의 동기를 가지고 은사를 추구하고(고전 14:1)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를 사모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은사는 사랑의 성품에 싸여서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은사를 사용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거울로

비쳐 보아야 한다. 정말 내가 겸손하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은사를 사용하는가? 만약 조금이라도 내가 가진 은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고 자신을 증명하거나 자랑하고 싶은 동기가 조금이라도 숨어 있다면, 즉시 회개하고 은사를 사용해야 한다. 은사를 통해서 개인이 드러나면 안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난야 한다. 특히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는 태도가 조금이라도 나타나는 것은 마귀적이다. 조심해야 한다.

4. 은사를 받았다고 영적성숙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성령의 은사는 자신의 영적 성숙도와 비례하지 않는다. 영적유년기에 있는 사람에게도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난다. 초자연적인 영적경험을 많이 한다고 (예: 환상을 보고, 천사를 만나고. .)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는 결코 아니다. 영적성숙은 별개의 문제로 성령의 열매가 자신의 인격에 열리는 것이다. 이것은 내주하시는 성령께 복종해서 날마다 자신의 자아(나쁜)와 자존심을 죽이는 만큼 성숙한다. 성숙한 사람들은 교역자의 지도에 따라 영적아버의 단계까지 성장하도록 겸손하게 교회에서 정해진 훈련을 받아야 한다.

5. 오늘날의 모든 예언은 단지 참조할 뿐이다. 성경의 예언과는 전혀 다르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이미 달렸기 때문에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는 어떤 예언이라도 성경예언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없다. 성경의 예언은 명료하고 충분하며 더이상 예언이 필요없다. 따라서 오늘날 모든 소위 예언이라고 불리는 것은 단지 성경을 개인에게 적용시켜주는 수준에서 참고할 뿐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처럼 절대적이지 않다. 따라서 모든 예언은 성경에 비추어 올바른지 분별되어야 하고 검증되어야 한다(고전 14:29). 그리고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제를 받아야 한다.(고전 14:32) 꿈이나 환상도 역시 단지 참고사항일 뿐이다. 언제나 개인적인 오류에 빠질수 있는 위험이 항상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일반지침

1. 본 교회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성령의 은사를 인정하며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그러나 은사들 중에서 예언, 방언통역, 병고침과 같은 은사 (이하: 은사)가 나타날 경우에는 반드시 먼저 담당 교역자에게 알리고 적절하게 교회의 검증을 받은 후에 사용한다. 은사사용은 교회에서 지정한 공식적인 시간과 장소에서만 (예: 공식 기도회, 중보기도 모임 등) 허용한다. 개인적인 소그룹에서의 은사사용은 허용하지 않는다.
2. 자신에게 처음 은사가 오고 스스로 은사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확신이 올 때도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은사를 밝히지 말라. 먼저 담당교역자의 멘토링을 받고 적절한 훈련과정을 밟아서 은사자로 세워져야 한다. 본 교회에서 은사자(예언, 신유, 방언통역 등)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제공하는 4 가지 삶 공부(생명의 삶, 말씀의 삶, 제자의 삶, 선교학교, 기도학교)를 다 이수해야 하며, 교회개척선교(단기선교)에 한번 이상 다녀온 사람으로, 최소한 3 년이상 본교회에서 중보기도사역에 헌신한 자로서, 반드시 자신의 삶에 “성령의 열매”(갈 5:22-23)가 나타난 자들로 담임목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비록 은사자로 세워졌을 때에도 자신이 **은사자라는 것을 드러내지 말고**, 겸손하고 조용하게 사역과 열매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연스럽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 은사자로 사역하기 이전에 먼저 예배자로, 중보자로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앞에 드리고 인격의 열매가 맺혀야 한다. 모든 은사자들은 자신은 단지 통로에 불과함을 늘 인식하고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흘러가도록 늘 거룩한 삶을 살도록 애쓰며 영적인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자신이 가진 은사가 다른 사람의 은사보다 더 커 보일때는 이미 영적교만에 빠져 있다는 증거다.** 항상 자신의 **은사 사용 동기를 점검하라.** 은사로 이성을 도울 때는 밀폐된 공간이나 신체 접촉을 가능한 피한다. **교역자가 아닌 경우에는 머리에 안수하지 않는다.**

4. 목장에서는 **목자, 초원에서는 초원지기의 감독 아래** 은사가 사용되어야 하며, 목자와 초원지기들은 **담임목사의 감독 아래** 있다. 목장안에서 목원끼리(은사자로 인정된 목자의 감독없이), 초원안에서 목자/목녀끼리(은사자로 인정된 초원지기의 감독없이) 서로가 방언통역을 하거나 예언하지 않는다. 예언을 할 때에는 반드시 옆에 그 예언을 분별할 수 있는 다른 인정된 두사람 이상의 사역자가 있어야 한다(고전 14:29).

5. 중보기도 중에 보여주신 **환상이나 하나님의 음성**은 그자리에서 **절대 말하면 안된다.** 먼저 개인의 기도골방으로 가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만약 중보기도팀에 공개하여 함께 기도해야 할 내용이 있으면 해당 모임에서 권위를 가진 인도자에게 말하여 권위자의 분별에 순종한다. (이러한 분별의 과정 없으면 교만의 죄를 범하거나 모임에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

6. . 더 나아가 어떤 **특정 형제 자매에 대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도**(혹은 환상을 보았을 때 등) **절대로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말하면 안된다.** 혼자 하나님과 은밀하게 그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하면 된다. 그러나 반드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담담교역자나 담임목사와 상담을 요청한다. 교역자가 듣고 판단해서 결정할 것이다. 은사를 사용하는 중에 알게 된 상대방의 비밀은 누구에게도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7. 공식적인 은사자로 세워진 뒤에도 **방언통역과 예언**을 하다가 확신이 들지 않는 부분은 통역하거나 예언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은 **따로 담임목사에게 멘토링**을 받아야 한다. 앞에서 말했듯이 예언, 꿈, 환상 모두다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언제나 오류에 빠질 위험이 있다. 특히 **방언통역의 내용은 개인의 영의 기도일 뿐이다.** 방언 통역을 통해 들은 내용을 사실로 다루지 말아야 한다. 방언 통역 내용은 그 사람의 기도이므로 그 사람이 생각하는 내용일 뿐이다. 사실과 다를 수 있고, 진리는 더욱더 아니다. 지시적으로 말하지 않고 참고만 하게 한다..

8. 은사와 성령체험은 중요한 것이지만 **말씀을 확증하는 부차적인 것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언제나 은사보다 **말씀이 우선**한다. 성경말씀만이 절대적인 진리이다. 따라서 지나치게 은사에 의존하면 위험하다. **외부 은사 집회에 참석하기 원할때는 사전에 담당교역자와 상의**해야 한다. 은사를 사모하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사모하고 추구해야 한다.

9. **성령체험과 은사 사용은 전도와 새신자 양육 등 초기 변화에** 집중한다. 은사의 사용을 지나치게 의존할 경우 개인적으로 주님과과의 교제를 통해 인도받는 것을 방해할 수 있고 비정상적인 신앙생활을 낳게 할 위험이 크다. **은사 사용은 섬김으로 영혼구원해서 제자 삼는 사역을 돕는 역할**을 한다.

10. 은사자의 은사 사용이 **본 교회의 신앙노선이나 목회 방향과 달라서 목회에 혼선을 주지 않게** 한다. 은사를 빙자해서 **목회자의 권위를 거스르거나** 모임의 질서를 깨뜨리면 모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준다. 목회자를 세워주고 목회에 도움이 되게 은사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 교회에 덕이 되지 않으면 은사 사용은 의미가 없다(고전 14:4,5).

특별지침

1. 방언

- (1) 우리 교회는 성경에 나온 **방언의 은사**를 장려한다.
- (2) 방언의 은사를 받도록 도울 때는 **인위로 연습시켜서는 안된다**.
- (3) **방언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방언기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 (4) 방언을 한다 안한다 혹은 방언의 형태 등으로 개인신앙의 수준을 판단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과 방언은 상관이 없다.
- (5) **방언통역**은 담임목사의 허락 하에만 할수 있다.

2. 예언

- (1) 예언의 은사는 주로 혼자서 “**예언적 증보기도**”를 드리는 사역에 사용한다.
- (2) 기도하는 중에 예언이 올 때에도 **절대 다른 사람에게 ‘지시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단순히 ‘기도하는 방식으로’ 기도해 줄수는 있다.
- (3) **개인의 사생활이나 신후사에** (예: 진로, 진학, 배우자 문제, 직장, 이사 등 의사결정) **대해서는 절대 예언을 하지 않는다**. 날에 대한 예언도 하지 않는다. 개인의 문제는 자기 자신이 기도하여 하나님의 인도를 받도록 도와야 한다.
- (4) **꿈과 환상에** 대해서는 말씀으로 확증받고 성경적 해석이 될 때까지 마음에 간직하고 기록한다.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전에 반드시 담임목사와 상의 하라.
- (5) 담임목사 외에는 예언기도를 할 때 **일인칭을 사용하지 않는다**.

3. 병고침(신유)

- (1) 우리 교회는 병고침의 은사를 인정한다. 그러나 병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신유사역자에게 한정된 사역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주님의 명령**이므로 목장에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해야 한다.

- (2) 목장에서 병자를 위해 기도할 때는 하나님의 치유를 믿는 **성도 모두가 함께 손을 얹고** 공동으로 기도한다.
- (3) 신유 은사는 어떤 현상보다 **병이 나옴으로 입증**된다. 따라서 신유은사를 독특한 현상과 (예: 환상 가운데 환부가 보임, 손이 커짐, 환상 가운데 병이 나옴, 손을 얹을 때 병자가 고통스러워함 등) 연결시켜서는 안된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병이 치유되어야 한다.
- (4) 병고침 물론 은사이긴 하지만 보편적인 면이 강하므로 **신유 은사라는 용어는 부각시키지 않는다**. 신유은사를 가진 사람도 하나님께서 신유은사를 통해 모든 질병을 치유하지 않는 것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한다.

4. 축사

- (1) 본 교회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았기 때문에 축사를 인정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귀신을 분리시켜 쫓기보다 **예수 이름으로 사단을 대적하는 기도의 형태**를 취할것을 권장한다.
- (2) 질병의 원인 중에서 특별히 **귀신들림의 역사**를 분별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전문 사역자나 교역자가 아니면 권장하지 않는다.

은사 식별

- (1) 그 은사가 성경에 있는가? 예를 들어 영무, 영서는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다.
- (2) 열매가 좋은가? 그 사역의 열매가 아름답고 교회에 덕이되고 영향을 받는 이들이 열매 맺고 있는가를 본다.
- (3) 인격적인가?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말이 아니라 인격이다.
- (4) 은사 받은 자의 가름침, 행위, 은사 자체가 교리적으로 바른가?
- (5) 은사 받은 자가 정말 하나님만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균형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 (6) 은사를 받은 경로가 어떠했는가? 이단이나 잘못된 곳에서 안수 받거나 하지는 않았는가? 현재 누구에게 멘토를 받고 있는가?(혼자 은사사역을 하는 사람은 위험하다.)
- (7) 정욕이나 욕심에 끌리고 있지 않은가? 은사 사용에 물질, 권력, 명예, 성, 간교한 점이 없는지를 보아야 한다.
- (8) 성령의 인도는 교회의 건전한 상식을 넘어서지 않는다. 윤리적으로 모든 다른 행동에 있어서도 덕이 되는가?
- (9) 건전한 은사자는 **영적인 아비의 단계**에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영적인 아비 단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은 후에 약 10-20 년의 훈련이 필요하다.